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영결식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10시 청와대 앞



저의 신화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

## 영결식 순서

- 사회: 이태옥 공동집행위원장
-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내빈소개 및 감사 인사
- 약력 보고
- 공동장례위원장 추도사 (강해운, 최종진, 박석운)
- 원로성명 낭독 (조성우 공동장례위원장)
- 추모공연
- 유족 인사 (엄계희 님)
- 호상 인사 (이택우)
- 헌화
- 운구행진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 바람의 자유인, 백만 촛불혁명의 한 평화주의자

## 故 조영삼 님 약력 및 경과 보고

- 1959. 9. 1. 父 조철우, 母 이정순의 4남1녀 중 넷째로 부산에서 출생
- 부산 동래고, 동국대 정외과 졸업
- 한겨레신문 지국장
- 1990. 장기수 석방자 개인후원 시작
- 1991. 3.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1년여 개인적으로 돌봄
- 1992. 5. 남북회담 차 내한한 북한 연형묵 총리를 이인모 노인 북한 송환 위해 면담 시도,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형 선고
- 동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사업 중인 만형에게 감
- 1995. 4. 평양의 이인모 씨로부터 초청 접수
- 동년 8월 유럽 경유 방북, 20여 일 체류
- 동년 9월 독일 베를린 도착, 망명수용소에서 3년간 생활
- 1999. 망명 허가 후 범민련, 6·15해외위원회, 그린피스 등 활동
- 2003. 7. 엄계희 씨와 결혼
- 2004. 8. 아들 한얼 출생
- 2010. 8. 15. 부인과 아들 먼저 귀국
- 2011. 12월 근무 중 10미터 높이에서 추락, 뇌수술
- 2012. 12. 31. 유럽(독일) 거주 17년 만에 귀국 즉시 공항에서 국정원으로 연행, 구속
- 2014. 4. 30. 대법원 파기환송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법정구속
- 출소 후 밀양에서 노모 봉양하며 가족과 거주
- 노무현재단 밀양지부 운영위원
- 밀양 겨례하나 회원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2011년~)



2017. 9. 19.(수)

- 16:10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잔디마당에서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는 구호 외치며 분신(유서 4장)
- 16:18 소방대 출동, 신촌 세브란스병원 후송, 임시조치 후 다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전신 95% 화상 진단
- 22:00 1차 쇼크, 약물로 긴급소생술

9. 20.(목)

- 00:20 밀양에서 부인과 아들 상경, 병원 도착
- 09:34 운명 (향년 58세)
- 11:00 사드저지전국행동 외 병원 앞 기자회견(애도 성명 발표)
- 12:00 가족 동의로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고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결정, 장례위원회에 기존 사드철회 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외 확대 참여 요청
- 성주읍, 소성리, 김천시, 제주 강정마을, 인천, 전주 등 전국 각지에 추모 분향소 자발적 설치

▶ 9. 23. (토) 장례일정 ◀

- 07:30 발인 미사
- 09:00 상암동 고별방문
- 10:00 청와대 영결식
- 11:30 미 대사관 앞 노제
- 13:00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 18:00 성주 소성리 노제
- 21:00 밀양성당 ‘천상낙원’ 봉안식



## 故 조영삼 님 마지막 말씀

2017년 9월 19일 남기신 편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래전, 독일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도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시킬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 생각도 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이진 아닌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밑당'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밀리면 뒷감당을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실로 진실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남북경협, 평화통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통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닐 것입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드미사일 자체보다도 사드배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감시망에 놓여있는 북한과 중국은 사드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그들의 제1 타격 목표는 사드배치지역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ICBM은 중심이 짧은 한반도용이 아니라 대륙을 넘나드는 장거리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 미국용입니다. 대통령님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배치'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드배치를 앞당긴 것은 현실국제정치의 냉혹한 벽을 뚫지 못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님의 대화제의에 핵심힘 등 엇박자를 놓고 있는 북한 당국에 있겠지요.

의도했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산물인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미래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킨게임의 결과는 남북 공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매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때 보편적 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인민군 종군기자 출신 이인모 선생의 손발이 되어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인모 선생은 분단비극의 후유증으로 자력으로는 단 한걸음도 걸을 수 없었지요)

당부 드리건대, 당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우리민족끼리'처럼, 말로만 '민족', '민족'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끼리 합심하여 짊어지고 간다는 정신으로 미국과 양자간 '밀당' 하기 전에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끼리'라 해놓고 이른바 '코리아패싱'은 안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을 넘어서 길이 남을 촛불혁명정권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기필코...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미국을 꿈쩍 못하게 하는 묘수가 남북대화 과정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신념의 화신'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인모 선생과의 인연으로 세상의 주

변부를 떠돌며 인생행로와 역정이 여러 번 뒤바뀐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과 당부를 드릴 자격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나서도 그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가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굴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아보지 말라고...

그는 백만 촛불혁명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게 당당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촛불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셔서 성공한 정권으로 세계사에 길이 남으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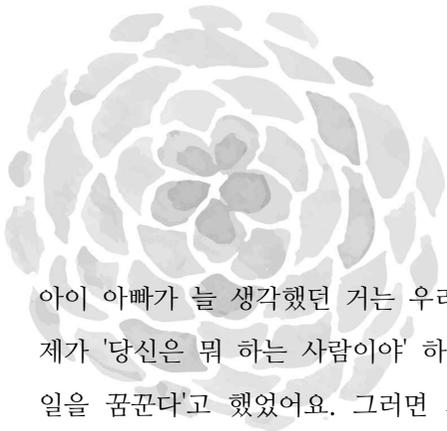
촛불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남북협력정책특보  
들풀하나 조영삼 드림



덧붙이는 글

: 저의 행동에 설왕설래 말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인생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이 세상 소풍 끝나지 않은 분들, 외람되지만 제 처와 어린 아들내미 부탁드립니다.



## 유족 말씀

부인 엄계희 님 말씀(17.09.21.)

아이 아빠가 늘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통일입니다.

제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었을 때, '여보 나는 통일이야. 그다음에는 세계 통일을 꿈꾼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꿈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이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사실 독일에 있으면서도 너무 문히며 살았고, 억눌림을 안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아이가 어리니 천천히 가자고 했고 아이 아빠도 따라줬습니다. 시골에 들어가 살면서 아이가 18세 이상 되면, 그때 시작하자고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진짜 평범하게 남이 하지 않은 일 해가면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아이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 해서 그래서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보, 그건 중요하지 않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맞추어 살면 되는 거야"라고 위로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로만 했고, 아이 아빠의 가슴이 되어보지 못했던 거 같아요. 지나고 보니 내가 너무 참으라고만 했던 걸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 아빠는 거실에 있으면 항상 멀리 보고 있어요. 너무 멀리 보길래 저는 "여보 너무 멀리 보지마. 가까이만 봐. 거실에서 발코니만 보라"고 했어요. 아이 아빠가 멀리 보려 했던 걸 내가 멈추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정치 얘기했는데, 박근혜 탄핵이 아이 아빠가 제일 기뻐했던 때였어요. 그 순간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이 폰수가 됐다는 걸 느낄 정도로 기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 여보" 하면서 저는 또 너무

아이 아빠가 기대하지 않을까 흥분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래도 조금 영향을 받는구나, 활력소가 생겨 다행이다 했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아이 아빠가 먼 산을 더 먼 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첫판부터 밀리면 안 되는데, 왜 밀리지"라고 하면서요. 아이 아빠가 "내가 너무 좋아했고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노 대통령님, 문 대통령님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드 서명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아이 아빠가 "우리가 겨레하나 회원인데, (사드 반대) 서명했어?"라고 물어서 제가 "내가 바빠서 들어갈 시간이 없었네, 미안해" 했거든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당신은 했냐"라고 되물었더니 했다고 하고요. 사드 반대 서명에 그 옆에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미국에 우리가 살아있고 목소리가 있다고 문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고 서명해서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지. 나도 하고, 당신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할 거야"라고 했죠.

지금은 문 대통령님이 사드를 미국 의도대로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대화가 마지막 정치적 대화였습니다.

박근혜 하야가 지나고, 잠깐의 기쁨 지나고 가슴이 먹먹해 하는 시간 다시 왔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아야만 했고. 불안해했어요. 운동가의 아내는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 싶어서요. 매일 "여보 잘 다녀올게. 잘 있어"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늘 제가 전화를 했는데, 글을 좀 쓰냐고 물었어요. 아이 아빠가 글을 쓰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 아빠는 많은 글이 아니라 하나를 쓰더라도 된 글을 쓰고 싶어 했어

요. 저는 "여보 욕심 갖지 말고 작은 것부터 쓰라"고 했어요. 그날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못 썼다고 해서 일기라도 쓰라고 했어요.

(사고가 난) 그날도 전날처럼 출근했어요. 그 전날 밤 10시에 퇴근해서 아이 아빠에게 (저녁으로) 뭐 좀 시켜먹으라고 했더니 자장면 먹고 밖에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그냥 내놓으면 안 되고 깨끗하게 씻어 내놔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집에 점심에 전화를 못 했어요. 늘 10시, 12시에 전화를 하는데 그 날만 전화를 못 했어요.

그 날 연장근무 하려고 간식을 먹다 아들이 남긴 메시지를 봤어요. 아이가 '엄마,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갔다'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빠가 왜 어디를 가. 왜 집을 나가"라면서 전화했더니 아들이 아빠가 몇 시에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경찰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에게 차마 제대로 얘기를 못 했는데, 아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봤나 봐요. 기사를 읽고 "엄마 화상 2도면 괜찮아. 괜찮은 거야"라고 했어요.

집에 가보니 '여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메모지 하나가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남긴 건 그거 하나였어요.

알고 보니 지난주에 남편이 아들에게 4장짜리 편지를 복사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복사해 놓고 원본은 갖고 서울에 간 거였어요. 기차 타고 가는데, 아들이 "아빠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힘들어했을까 했어요. 그때 아들이 읽어 보라면서 편지 전문이 실린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 가슴에 있는 것을 토해냈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부터 멍멍해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사드 문제를 갖고 남편이 시작한 길은 조금 전 이덕우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마중물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아이 아빠는 많은 분이 오셔서 자신을 추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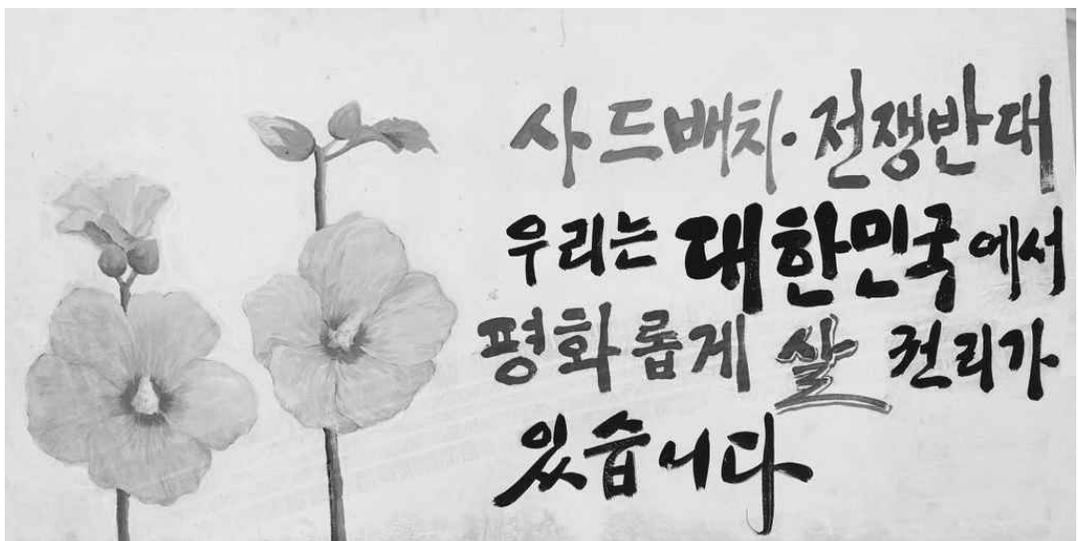
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걸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가 한 몸 던져서 이 나라에 작지만, 힘이 된다면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언론이나 여러분들 역시 정말 나의 어떤 이익보다는 나를 포함해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 득이 되면 그걸 쫓아가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영삼씨는 콩알만 한 말 한마디, 단어 한 마디라도 이것을 해서 남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절대 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검소하고 겸손하고 먹는 거 까지도 제한해서 소식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안 먹으면 저 사람이 먹을 텐데 하면서요.

통일을 꿈꾸던 사람이죠. 우리 아들이 뭐 하나 먹다 흘리면 아프리카로 보낸다고 늘 그랬어요. 먹는 거 버리지 말고, 흘리지 말라고 하면서요. 뭐든지 물도 많이 못 쓰게 해요. 물도 아끼라고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막 불을 켜놓으면 남편이 끄면서 다녔어요. 참 소박했던 사람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7.09.21.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 사랑했지만, 사드배치 후 한숨만..." 중 부분 인용]



하나 된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먼저 남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서야만 한다는 희망으로 촛불을 들어 새 정부를 탄생시키고,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신념에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며 온몸을 던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고 조영삼 통일열사여!

그토록 성공해야 한다며 애정을 가지셨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중을 배신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던 날 소성리 현장에서 무지막지한 공권력에 스무 시간을 질질 끌려다니면서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 치 떨리는 배신감을 당신의 목숨으로 내놓으시다니 우리 누구라도 당신과 같은 맘이었지만 결국 그 뭇을 당신께 지우고 보니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마지막 남겨진 그 절절한 외침을 우리가 남김없이 실현하여 통일된 세상을 열어가야만 하기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함께 평화의 길,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자들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열어 가겠습니다.

고 조영삼 통일열사여!

한 많은 이 땅에 소풍 오셨다 이제 가시는 길 부디 편히 가시고 또 가신 듯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오시어 함께 평화세상 통일세상 맞이합시다.

가시는 걸음 걸음 큰 성자의 길이 되시옵소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평화만을 꿈꾸던 이가 한반도 평화의 제단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한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한국에 배치를 강행한 전쟁 무기 사드가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신 평화주의자 고 조영삼 님 앞에 우리 모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 숙입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임했듯이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진 정부입니다. 그러나 국민 앞에 했던 “당당한 외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지난 9월 7일,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소성리 80대 노인들을 짓밟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모습에서 박근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고 조영삼 님의 절규로, 국민들의 호통으로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해무익한 사드는 나라의 평화도, 안보도, 국익도, 노동자의 생존권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피맺힌 외침과 고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키려 했던 이 땅의 평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절실한 요구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한미 간 제대로 된 합의조차 없는 불법 사드 공사와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 철회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드를 강요한 미국은 물론 남과 북은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사드 철회를 위해 기꺼이 마중물이 되신 고 조영삼 열사여!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평화와 통일된 세상을 꿈꿔오신 것을 잘 압니다. 그 길에 노동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마을과 평화를 지키고 계신 소성리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자들은 당신이 남기신 시대의 요구를 들고 투쟁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살아 이루고자 했던 꿈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던 꿈이요, 새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조영삼 열사여! 평생 싸워 오신 무거운 짐, 이제는 넘겨주시고, 편히 쉬십시오.

# 추도사

공동장례위원장 박석운

동지여! 동지여!

조영삼 동지여!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평화주의자, 조영삼 동지여!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촛불 항쟁 이후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을 일삼던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비통합니다.

촛불 항쟁으로 들어선 이 정권이, 전 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강행을 마무리하는 이 역설 앞에서 고통받고 분노하신 고인의 마음이 바로 촛불 항쟁에 나선 민초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존경했고 사랑하리라고 생각하셨던 조영삼 동지의 영전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성 있게 요구합니다. “저의 산화가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달라”는 피맺힌 조영삼 동지의 호소를 실현시켜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조영삼 동지가 목숨을 걸고 외친 대로 “평화를 기원한 나라, 대한민국을 알아보지 말라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미국에 당당히 말”하고 그에 맞는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그리고 촛불정신을 배반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또한 사드 배치를 폐기하고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조영삼 동지와 촛불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의 호소를 새겨들어야 합니다.

촛불 민의는 굴욕적 대미 추종으로 점철된 종속적 한미동맹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과 자주권이 숨 쉬는 나라입니다.

고인이시여, 편안히 잠드소서.

남은 우리가, 고인의 유지를 가슴에 새기고, 촛불 민의를 관철하여, 끝끝내 이 땅에서 사드를 철거하고, 이 땅의 평화를 만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 추도사

공동장례위원장 조헌정

1967년 신동엽 시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그로부터 21년이 지나 김남주 시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 남 모르게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권력의 눈앞에서 /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 자본가 개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라고

그리고 다음 해 1989년 북조선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가기 전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벗들이여! / 이런 꿈은 어떨겠소? / 155마일 휴전선을 /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오르다가 /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  
었던 북녘땅 한 삽 / 공산군의 살이 찌른 남녘땅 한 삽씩 떠서 / 합장을 지내는 꿈, /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겨레의 순례지가 되겠지. /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 사팔뜨  
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지금 우리는 사드 배치를 강요함으로 조영삼 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뿐더러 지난 수십 년  
간 세계 주요 전쟁의 도발꾼인 조폭 미국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  
영삼 님이 말한 것처럼 “사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과 전쟁의 위험만 가중  
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일 미사  
일체제에 남한을 읊아매는 하나의 전략일 따름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트럼프는 얼마 있지  
않아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를 강매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 MD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은 너무 가까워 구식 무기만으로도 단숨에 동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첨단무기를 한국에 팔겠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에 감응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군사 패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빌미로 무기 팔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장사꾼의 나라, 그게 미국의 실체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끌어안고 평생을 애써왔던 고 조영삼 선생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전쟁이라는 죽음의 족쇄로부터 구해내고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사에게 빛을 족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죽음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미국 너희들이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켰는지는 몰라도 우리 천만 촛불 시민의 힘을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횡포에 맞서 이 나라의 존엄과 자존, 평화와 주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코 이뤄낼 것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미군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70여 년에 걸친 지긋지긋한 분단과 암흑의 정전체제를 끝장냅시다! 우리 땅, 우리 조국,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조영삼 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조영삼 열사여! 평안히 가십시오. 그대의 못다 한 일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빡 웃음 지으며 서로를 부둥켜안는 그날까지 평안히 쉬십시오. 조영삼 열사여!

평화를 빕니다.

조영삼 프란치스코는 분신 전 유서를 쓰고 집에 복사해 놓았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간명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영삼 프란치스코는 인도주의,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리인모 노인을 돌보다 감옥살이를 했고, 복송된 리인모 노인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여 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오로지 리인모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조영삼 프란치스코는 몸에 불을 붙이고 어린 아이처럼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 찍었던 몇 년 전 사진, 영정사진을 보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 한 몸 불태워 평화의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부디 평화를 이루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응답하여야 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 평화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입니다. 고인이 마중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한 방울 물이 되어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아직 소풍 끝내지 않은 우리가 해야 할 평화농사입니다.

장례기간 동안 빈소를 찾아주시거나 조의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선종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든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데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고문** 강만길 강정구 권낙기 권영길 권오헌 김도심 김병상 김병오 김병태 김삼웅 김상근 김영옥 김영훈 김윤수 김자동 김재열 김종철 김중배 김태진 남상헌 단병호 문규현 문대골 문영희 박상은 박상희 박석무 박순경 박순희 박재승 박중기 배은심 배종열 백기완 백세봉 서창호 신경림 신승철 양길승 오종렬 유영표 윤경로 윤한택 이길재 이만열 이삼열 이수호 이이화 이창복 이천우 이철 이해동 임기란 임성규 임재경 임진택 장임원 전기호 전창일 정동익 조영건 조준호 조화순 천영세 청화 한상렬 함세웅 홍수철

**공동장례위원장** 강해운 고영대 김경호 김귀옥 김동건바오로 김대성 김병준 김선명 김성혜 김순애 김영순 김영호 김윤성 김종경 김종훈 김주은 김창한 김충환 김형계 남재영 노성화 문경식 박래군 박석운 박인기 박철 박충흡 박태정 박희주 방인성 법안 양기환 윤정숙 이갑용 이규재 이래경 이석주 이정배 이정미 이종희 이재석안드레아 이호동 임현영 장남수 정강자 정병문 정연순 정인성 정종성 정현찬 조덕원 조성우 조순덕 조천준 조헌정 조희주 최병모 최빨라뻬다 최용정 최종진 최진미 한명희 한상균 한충목 해용

**집행위원장** 박석민 박정은 안지중 오혜란 이연희 이태옥 정영섭 최병현 최영준

**호상** 이덕우

**의전/기획위원회** 오혜란 김병규 이태옥 박선아 김태복 이재덕

**치산위원회** 최병현 박석민 이단아

**조직위원회** 이종문 최은아 함형재

**대협위원회** 안지중 김덕진 나기주

**홍보위원회** 정영섭 박정은 황수영 김진영

**운구/문예위원회** 류정애 박선봉

**재정위원회** 조은숙 지수인

**장례위원** 가동명, 가은경, 강경대추모사업회, 강경석, 강경표, 강광석, 강구배, 강규혁, 강규혁, 강근정, 강금수, 강기영, 강남훈, 강다복, 강도국, 강동선, 강동수, 강동진, 강동헌, 강동화, 강말숙, 강문대, 강문상, 강문수, 강미나, 강미라, 강민호박태순추모사업회, 강병철, 강복현, 강상선, 강상철, 강선순, 강선영, 강선희, 강선희, 강성란, 강성란, 강성원, 강성윤, 강수남, 강수동, 강수혜, 강순영, 강순중, 강순희, 강승욱, 강신원, 강연배, 강연하, 강연희, 강영구, 강영신, 강영주, 강영철, 강영희, 강영희, 강옥희, 강용재, 강원희, 강윤미, 강윤복, 강

은미, 강은숙, 강은주, 강정애, 강정철, 강정희, 강준규, 강진아, 강진희, 강창덕, 강창수, 강  
 춘석, 강춘원, 강충수, 강태우, 강필성, 강해현, 강현만, 강현주, 강형구, 강형석, 강  
 호경, 강호민, 강효경, 강희열,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운영위원, 고광덕, 고금, 고미경, 고병  
 찬, 고선희, 고성식, 고성효, 고성휘, 고성휘, 고송자, 고아라, 고영균, 고영대, 고영주, 고영  
 철, 고윤희, 고은광순, 고은성, 고임, 고재성, 고재한, 고준길, 고진형, 고창권, 고창권, 고철  
 환, 고혜진, 고희림, 고희림, 공명탁, 공선미, 공성식, 공수현, 공영순, 공영순, 공영옥, 공은  
 희, 공정옥, 공행식, 광노충, 광두호, 광빛나, 광성근, 광영희, 광이경, 광진경, 광진우, 광태  
 동, 광희엽, 광희용, 구금회, 구동훈, 구미현, 구본열, 구사일생, 구연철, 구윤희, 구자숙, 구  
 자용, 구종현, 구현, 국산, 권광식, 권두섭, 권미령, 권미정, 권병덕, 권수연, 권순선, 권순화,  
 권영식, 권오길, 권오길, 권오민, 권오창, 권오혁, 권오혁, 권오현, 권오희, 권용덕, 권용희,  
 권위상, 권익석, 권일, 권재동, 권재현, 권정오, 권정오, 권정호, 권종현, 권중도, 권진성, 권  
 차량, 권춘기, 권태원, 권택홍, 권해주, 권혁선, 권혁소, 권혁이, 권혁이, 권형은, 기동서, 기  
 형노, 길주연, 김강연, 김강학, 김건우, 김건태, 김검희, 김결태, 김경구, 김경란, 김경민, 김  
 경석,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신, 김경애, 김경엽, 김경자, 김경철, 김경호, 김경호, 김  
 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경희, 김관철, 김광균, 김광길, 김광렬, 김광식, 김광철, 김광호, 김  
 광훈, 김구채, 김군섭, 김규남, 김규돈, 김규미, 김규원, 김규탁, 김규태, 김군섭, 김금례, 김  
 금옥, 김금철, 김기연, 김기준, 김기중, 김기표, 김기형, 김기형, 김길자, 김나영, 김나영, 김  
 낙경, 김낙옥, 김남명, 김남운, 김남일, 김남홍, 김남희, 김다희, 김달성, 김대봉, 김대송, 김  
 대용, 김대주, 김대하, 김대현, 김대호, 김덕근, 김덕만, 김덕수, 김덕용, 김덕중, 김덕중, 김  
 도경, 김도영, 김도영, 김도현, 김도희, 김동건, 김동국, 김동국, 김동근, 김동근, 김동길, 김  
 동수, 김동식, 김동옥, 김동우, 김동욱, 김동원, 김동인, 김동주, 김동중, 김동혁, 김동현, 김  
 득중, 김만현, 김만호, 김말용, 김맹규, 김명기, 김명숙, 김명원, 김명일, 김명환, 김모듬, 김  
 무강, 김문경, 김문찬, 김미경, 김미숙, 김미영, 김미진, 김미희, 김민문정, 김민수, 김민식,  
 김민재,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호, 김백수, 김병관, 김병규, 김병균, 김병석, 김병인,  
 김병일, 김병주, 김병준, 김병준, 김병태, 김병혁, 김보진, 김보금, 김보원, 김보현, 김보현,  
 김보희, 김봉님, 김봉석, 김봉선, 김봉수, 김봉용, 김봉진, 김삼렬, 김삼석, 김상구, 김상국,  
 김상권, 김상균, 김상정, 김상정, 김상준, 김상진사업회, 김상현, 김서진, 김석, 김석규, 김석  
 현, 김석훈, 김선경, 김선경, 김선수, 김선실, 김선영, 김선용, 김선우, 김선재, 김선필, 김선  
 희, 김성갑, 김성곤, 김성광, 김성기, 김성남, 김성남, 김성란, 김성룡, 김성률, 김성만, 김성  
 만, 김성보, 김성복, 김성복, 김성수, 김성애, 김성애, 김성용, 김성우, 김성주, 김성진, 김성  
 태, 김성현, 김성환, 김성희, 김세균, 김소연, 김송희, 김수경, 김수목, 김수미, 김수연, 김수  
 원, 김수정, 김수진, 김수훈, 김수희, 김숙연, 김숙영, 김숙원, 김순애, 김순열, 김순홍, 김승  
 애, 김승원, 김승호, 김식, 김애란, 김양지, 김억, 김언순, 김여진, 김연숙, 김연우, 김연희,  
 김영경, 김영근, 김영근, 김영남, 김영동, 김영리, 김영만, 김영모, 김영민, 김영범, 김영복,  
 김영석, 김영성,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순, 김영아, 김영일, 김영재, 김영정,

김영제,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철, 김영현, 김영호, 김영호, 김영환, 김예숙, 김옥숙, 김옥순, 김옥임, 김요섭, 김요한, 김용덕, 김용량, 김용빈, 김용서, 김용섭, 김용섭, 김용원, 김용재, 김용주, 김용철, 김용판, 김용환, 김용휘, 김우, 김우상, 김우영, 김옥동, 김우호, 김원근, 김원진, 김원진, 김유란, 김유미, 김유옥, 김유정, 김유진, 김유진, 김유현, 김윤경, 김윤정, 김윤조, 김윤준, 김윤중, 김윤천, 김윤환, 김울현, 김은경, 김은경, 김은규, 김은기,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진, 김은형, 김은혜, 김은혜, 김이하, 김익배, 김인경, 김인규, 김인선, 김인섭, 김인환, 김일한, 김일형, 김일희, 김자연, 김재국, 김재균, 김재득, 김재명, 김재민, 김재선, 김재영, 김재욱, 김재욱, 김재정, 김재주, 김재춘, 김재하, 김재훈, 김전승, 김정광, 김정길, 김정래, 김정룡, 김정명신, 김정민, 김정섭, 김정섭,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에, 김정옥, 김정주, 김정중,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희, 김정희1, 김정희2, 김제택, 김제홍, 김종국, 김종근, 김종길, 김종길, 김종대, 김종목, 김종민, 김종석, 김종선, 김종선, 김종수, 김종연, 김종옥, 김종옥, 김종인, 김종점, 김종태, 김종택, 김종현, 김종현, 김종환, 김종환, 김종희, 김주목, 김주숙, 김주업, 김주연, 김주영, 김주하, 김주현, 김준, 김준기, 김준범, 김준영, 김준우, 김준의, 김중와, 김중환, 김중현, 김지란, 김지선, 김지성, 김지애,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지후, 김진, 김진석,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철, 김진철, 김진표, 김진향, 김진혁, 김진현, 김진호, 김진호, 김차경, 김차연, 김찬, 김찬기, 김찬수, 김찬일, 김창근, 김창근, 김창근, 김창수, 김창우, 김창준, 김창현, 김창현, 김창호, 김채원, 김천, 김철은, 김철원, 김초마, 김치하, 김태복, 김태선, 김태식, 김태연, 김태엽, 김태영, 김태우, 김태욱, 김태일, 김태준, 김태진, 김태천, 김태천, 김태현, 김태훈, 김태희, 김평호, 김하범, 김학규, 김학규, 김학렬, 김학수, 김학철, 김학한, 김학한, 김한균, 김한성, 김한식, 김한중, 김한필, 김해경, 김행복, 김행수, 김행순, 김혁, 김혁민, 김현근, 김현기, 김현동, 김현동, 김현래, 김현선, 김현숙, 김현숙, 김현식, 김현옥, 김현우, 김현옥, 김현주, 김현진, 김현하, 김현희, 김형규, 김형기, 김형삼, 김형식, 김혜란, 김혜명, 김혜수, 김혜숙, 김혜순, 김혜영, 김혜진, 김호중, 김호철, 김호현, 김홍선, 김홍술, 김홍철, 김화중, 김환균, 김희영데레사, 김효경, 김효남, 김효연, 김후연, 김후연, 김훈, 김홍식, 김희경, 김희수, 김희식, 김희원, 김희정, 김희중, 깡철이, 나기주, 나덕수, 나만수, 나명주, 나병권, 나순자, 나승구, 나영명, 나인한, 나정선, 나창순, 나해철, 남광현, 남궁돈, 남궁두, 남궁윤, 남궁정, 남기남, 남명수, 남미영, 남상기, 남상학, 남선진, 남성민, 남수정, 남영란, 남재영, 남정수, 남정아, 남주성, 남준희, 남창현, 남택범, 노건환, 노경석, 노균원, 노기돌, 노기호, 노무현재단 진주지회, 노미경, 노민현, 노병섭, 노복희, 노수희, 노아라, 노영필, 노우정, 노유림, 노재열, 노정섭, 노정연, 노정현, 노종화, 노철호, 단국대공대민동, 대용, 대전청년회, 도라지, 도명화, 도상록, 도유정, 도철, 동학실천시민행동, 라의형, 락라, 류광열, 류동연, 류미경, 류봉식, 류성문, 류승래, 류연석, 류은실, 류재섭, 류재수, 류정식, 류정에, 류주형, 류지원, 류진춘, 리산, 리산, 리산은숙, 리영준, 린다 모, 마성완, 마희진, 맹완재, 맹주재, 명숙, 명창엽, 목창환, 목포민주화계승사업회, 문경미, 문경호, 문국주, 문군호, 문

규현, 문기주, 문대현, 문덕수, 문미영, 문병숙, 문병호, 문선경, 문설희, 문성규, 문성호, 문  
 숙경, 문영란, 문재현, 문정선, 문정호, 문제열, 문태주, 문한나, 문현숙, 문현일, 문형귀, 문  
 홍석, 문화현, 문희현, 미류, 민경신, 민경자, 민길숙,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병덕, 민선, 민소연, 민소현, 민영기, 민점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박가  
 영, 박강리, 박경미, 박경범, 박경석, 박경우, 박경필, 박경환, 박계일, 박계현, 박권철, 박규  
 성, 박근혜퇴진성남국민운동본부, 박금규, 박금숙, 박기병, 박기수, 박기학, 박김영희, 박남  
 부, 박남섭, 박남희, 박노봉, 박대성, 박대운, 박동규, 박두진, 박득훈, 박명기, 박명호, 박명  
 흡, 박모은, 박문희, 박미라, 박미애, 박미정, 박미해, 박미화, 박민, 박민서, 박민숙, 박민혁,  
 박배일, 박병권, 박병문, 박병우, 박병욱, 박병을, 박보혜, 박봉렬, 박봉주, 박봉춘, 박삼석,  
 박삼성, 박상규, 박상오, 박상욱, 박상은, 박상진, 박석규, 박석민, 박석분, 박석준, 박선봉,  
 박선아, 박선영, 박선우, 박설, 박성근, 박성률, 박성욱, 박성을, 박성진, 박성철, 박성철, 박  
 성호, 박성환, 박성훈, 박세연, 박세찬, 박소영, 박소현, 박소희, 박송미, 박숙단, 박순기, 박  
 순길, 박순단, 박순희, 박슬기, 박승관, 박승렬, 박승렬, 박승억, 박승자, 박승주, 박승찬, 박  
 승하, 박신순, 박신열, 박양운, 박연미, 박영경, 박영균, 박영민, 박영성, 박영일, 박영진, 박  
 영찬, 박영흠, 박오숙, 박옥분, 박옥섭, 박옥주, 박요한, 박용규, 박용수, 박용익, 박용환, 박  
 우석, 박운옥, 박원서, 박유리, 박유숙, 박유순, 박윤기, 박윤석, 박윤희, 박은경, 박은동, 박  
 은서, 박은정, 박은화, 박인서, 박인환, 박일남, 박재동, 박재량, 박재산, 박재열, 박재영, 박  
 재혁, 박재현, 박재형, 박재희, 박점옥, 박정권, 박정규, 박정숙, 박정애, 박정열, 박정원, 박  
 정철, 박정호, 박정화, 박정환, 박종갑, 박종권, 박종권, 박종기, 박종률, 박종부, 박종신, 박  
 종성, 박종열, 박종완, 박종우, 박종윤, 박종진, 박종찬, 박종철, 박종태추사, 박종희, 박주  
 미, 박주승, 박주영, 박준선, 박준성, 박준형, 박중배, 박지선, 박지수, 박지영, 박지찬, 박지  
 호, 박진, 박진도, 박진석, 박진억, 박진옥, 박진원, 박진홍, 박차옥경, 박찬미, 박찬중, 박창  
 규, 박창균, 박창호, 박창환, 박천규, 박철웅, 박철희, 박춘배, 박춘애, 박충렬, 박충일, 박치  
 관, 박치현, 박태규, 박태기, 박태봉, 박태훈, 박필수, 박하순, 박한국, 박한백, 박한승, 박한  
 용, 박해룡, 박해철, 박행덕, 박향미, 박현구, 박현숙, 박현숙, 박형규, 박형대, 박형백, 박혜  
 경, 박혜미, 박혜정, 박홍순, 박환조, 박희동, 박희선, 박희은, 박희인, 박희진, 박희춘, 박희  
 태, 박희훤, 반명자, 방국진, 방기원, 방민희, 방석수, 방영식, 방용승, 방은숙, 방인순, 방효  
 신, 배동길, 배동산, 배문, 배문, 배미영, 배병철, 배부기, 배소영, 배순주, 배영준, 배영진,  
 배영현, 배윤기, 배은주, 배인석, 배일훈, 배종철, 배준경, 배한동, 배현영, 백가운, 백경연,  
 백남수, 백남해, 백미순, 백석근, 백선기, 백선영, 백성호, 백소영, 백소요, 백순옥, 백승기,  
 백승춘, 백승훈, 백영기, 백영기, 백옥심, 백완승, 백은미, 백종성, 백종성, 백준, 백창욱, 백  
 현국, 백형국, 백형록, 백희정, 법상, 변린이, 변문수, 변백선, 변현주, 변희영,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복성경, 봉수진, 봉혜영,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부석희, 부울경본부, 북녘어  
 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사드반대 탄저균추방 평택시민행동, 사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서경원, 서경혜, 서경혜, 서경훈, 서광석, 서광일, 서귀환, 서기태, 서

달호, 서덕석, 서동훈, 서민수, 서보람, 서보엽, 서봉근, 서상호, 서선주, 서영만, 서영섭, 서영옥, 서영옥, 서영우, 서우영, 서울겨레하나, 서원모, 서유미, 서은화, 서일웅, 서재택, 서재훈, 서정남, 서정대, 서정란, 서정례, 서정숙, 서정식, 서종환, 서주호, 서종교, 서지경, 서지영, 서진상, 서진희, 서진희, 서창호, 서형석, 서화조, 서효성, 석영철, 석영철, 석원희, 선미라, 선옥, 선종현, 선지현, 설남술, 성낙을, 성명은, 성명현, 성상민, 성영애, 성재상, 성주연, 성해용, 세월호성남시민대책회의, 소경환, 소성호, 소영재, 손경희, 손기종, 손무수, 손병선, 손상희, 손석용 열사 추모사업회, 손선재, 손소담, 손솔, 손수영, 손승환, 손영준, 손유목, 손재복, 손정희, 손종욱, 손지희, 손춘수, 손해연, 손호만, 송경용, 송기수, 송기철, 송기철, 송기춘, 송명호, 송무호, 송민수, 송병구, 송성동, 송성일, 송순교, 송순옥, 송승호, 송양주, 송영기, 송영배, 송영섭, 송영수, 송영주, 송우영, 송원석, 송원재, 송인섭, 송정민, 송주현, 송지영, 송찬흡, 송창주, 송철규, 송치용, 송태용, 송필경, 송해경, 송향숙, 송혜미, 송호철, 송효년, 송홍재, 송희주, 수열, 수영, 시경, 신경남, 신경준, 신광일, 신광진, 신권철, 신귀섭, 신근호, 신나영, 신동우, 신명수, 신명희, 신민시, 신삼렬, 신삼열, 신상현, 신석규, 신석호, 신선아, 신선자, 신성남, 신성재, 신성호, 신성호, 신세민, 신수정, 신숙경, 신숙경, 신순옥, 신순희, 신엘라, 신연경미, 신영주, 신영철, 신옥희, 신용관, 신용봉, 신용생, 신용옥, 신용옥, 신윤철, 신윤혁, 신은주, 신인수, 신장호, 신재훈, 신정길, 신정원, 신종만, 신종원, 신진선, 신차범, 신창복, 신춘하, 신현암, 신형우, 신혜선, 신한섭, 신희철, 심규협, 심옥빈, 심용선, 심유리, 심재준, 심재환, 심재훈, 심준희, 심진규, 심호섭, 아샤, 안기원, 안김정애, 안나경, 안동섭, 안미영, 안봉한, 안석태, 안성민, 안성은, 안순애, 안순호, 안승문, 안승찬, 안양근, 안영근, 안영옥, 안옥수, 안옥수, 안용국, 안우식, 안우혁, 안윤희, 안종기, 안종훈, 안주용, 안지섭, 안지중, 안진, 안창노, 안태극, 안학수, 안향미, 양건모, 양경수, 양경자, 양고은, 양관진, 양규서, 양규석, 양기환, 양동규, 양동근, 양동옥, 양동진, 양두철, 양명일, 양문령, 양민주, 양승준, 양영아, 양오길, 양원정, 양유빈, 양윤모, 양윤식, 양이화, 양인석, 양재규, 양재성, 양재성, 양재철, 양재혁, 양정석, 양종철, 양찬우, 양창아, 양춘승, 양태조, 양혜은, 양혜정, 양희철, 어미경, 엄길용, 엄도영, 엄미경, 엄정흠, 엄호동, 여기복, 여명순, 여상섭, 여운준, 여인두, 여인철, 여정희, 여찬동, 여혜숙, 연성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염기용, 염선엽, 염성태, 염손기호, 오경진, 오규섭, 오금홍, 오동석, 오동진, 오미정, 오민성, 오봉록, 오상훈, 오선영, 오세구, 오세자, 오승은, 오승주, 오승학, 오영준, 오영택, 오영환, 오옥목, 오용석, 오용운, 오임술, 오재경, 오재수, 오정오, 오종뢰, 오종원, 오준호, 오지연, 오진연, 오진택, 오창규, 오창환, 오하나, 오한정, 오현정, 오현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규성, 우리겨레하나되기인천운동본부, 우문숙, 우봉석, 우영주, 우정원, 우종숙, 원금이, 원동옥, 원종인, 원진옥, 원학운, 월엄, 위두환, 위유정, 유경수, 유기현, 유나리, 유다해, 유동호, 유병국, 유선근, 유선철, 유시경, 유영대, 유영란, 유영숙, 유영자, 유영재, 유영재, 유영창, 유완형, 유왕용, 유용균, 유우석, 유재석, 유재춘, 유정섭, 유정희, 유제경, 유종은, 유지원, 유지현, 유지우, 유태준, 유하나, 유한경, 유현주, 유혜숙, 유희중, 윤건, 윤경, 윤경신,

윤경희, 윤경희, 윤금순, 윤금희, 윤기진, 윤길수, 윤동수, 윤명은, 윤민호, 윤병국, 윤병기, 윤병술, 윤봉란, 윤봉란, 윤부식, 윤서영, 윤선아, 윤선호, 윤성림, 윤성림, 윤성호, 윤순철, 윤승길, 윤승하, 윤연수, 윤영규, 윤영미, 윤영미, 윤영일, 윤영훈, 윤영훈, 윤용배, 윤용조, 윤은정, 윤재설, 윤정애, 윤정희, 윤종광, 윤종범, 윤종오, 윤지홍, 윤충열, 윤치용, 윤한탁, 윤해정, 윤혜상, 윤호영, 윤화심, 윤희숙, 윤희애, 이 현, 이갑성, 이강서, 이강실, 이강원, 이강원, 이강진, 이강훈, 이건, 이건민, 이정민, 이정원, 이정은, 이경자, 이경희, 이계삼, 이광구, 이광규, 이광석, 이광석, 이광수, 이광수, 이광용, 이광우, 이광춘, 이국순, 이규삼, 이규학, 이근량, 이근수, 이근원, 이근정, 이금주, 이기모, 이기문, 이기범, 이기상, 이기원, 이기자, 이기중, 이기택, 이기홍, 이기훈, 이길연, 이길주, 이길호, 이나미, 이나미, 이나은, 이남진, 이남희, 이내창사업회, 이다솜, 이대동, 이대성, 이대식, 이대식, 이대영, 이대종, 이덕경, 이덕우, 이도흙, 이동근, 이동근, 이동기, 이동림, 이동백, 이동복, 이동수, 이동우, 이동익, 이두규, 이두희, 이득우, 이래경, 이래청, 이만영, 이명숙, 이명옥, 이명옥, 이명화, 이몽석, 이무구, 이무진, 이문식, 이문영, 이문용, 이문태, 이문행, 이미경, 이미경, 이미선,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현, 이미혜, 이민걸, 이민경, 이민선, 이민수, 이민숙, 이민숙, 이민영, 이민우, 이민우, 이민재, 이민현, 이범철, 이병무, 이병인, 이병철, 이병호, 이병희, 이병희, 이보라, 이보라미, 이보영, 이봉주, 이상미, 이상욱, 이상원, 이상원, 이상진, 이상철, 이상헌, 이상호, 이상훈, 이상홍, 이상희, 이생활, 이석, 이석길, 이석문, 이석재, 이석정, 이석철, 이석태, 이석하, 이석하, 이선애, 이선영, 이선인, 이선임, 이선진, 이성권, 이성봉, 이성수, 이성아, 이성용, 이성은, 이성재, 이성현, 이성호, 이성휘, 이성희, 이성희, 이세중, 이소영, 이수갑, 이수미, 이수연, 이수정, 이수호, 이순옥, 이순일, 이순향, 이승근, 이승도, 이승수, 이승열, 이승우, 이승원, 이승재, 이승철, 이승환, 이썬정석, 이아림, 이양수, 이양진, 이연주, 이영, 이영길, 이영록, 이영복, 이영분, 이영순, 이영식, 이영아, 이영주, 이영철, 이영호, 이영호, 이영희, 이요상, 이용관, 이용근, 이용석, 이용우, 이용위, 이우성, 이우영, 이우재, 이우준, 이운자, 이용기, 이원교, 이원규, 이원형, 이원호, 이위정, 이유섭, 이윤경, 이윤경, 이윤미, 이윤하, 이은미, 이은석, 이은선, 이은선,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진, 이은혜, 이은희, 이을재, 이의용, 이의직, 이의호, 이인동, 이인숙, 이장규, 이장균, 이장표, 이장희, 이재곤, 이재광, 이재동, 이재섭, 이재성, 이재수, 이재열, 이재윤, 이재정, 이재홍, 이재화, 이정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식, 이정옥, 이정옥, 이정은, 이정이, 이정찬, 이정천, 이정태, 이정학, 이정화, 이정학, 이정훈, 이정훈, 이정희, 이종관, 이종관, 이종대, 이종만, 이종문, 이종민, 이종범, 이종섭, 이종수, 이종화, 이종화, 이종희, 이주남, 이주미, 이주안, 이주연, 이주탁, 이주현, 이주호, 이준식, 이준태, 이준혁, 이준형, 이지희, 이지희, 이진숙, 이진식,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희, 이찬배, 이창규, 이창근, 이창미, 이창욱, 이천동, 이철규추사, 이철수, 이철우, 이철호, 이충각, 이춘선, 이춘식, 이충민, 이태경, 이태광, 이태석, 이태숙, 이태영, 이태형, 이태화, 이태환, 이태환, 이택훈, 이필숙, 이하선, 이학수, 이학우, 이학인, 이한석, 이한열사업회, 이해준, 이행섭, 이현, 이현, 이현

대, 이현숙, 이현숙, 이현승, 이현승, 이현자, 이현주, 이현주, 이현철, 이형백, 이형선, 이형  
 섭, 이형섭, 이해경, 이해경, 이호영, 이호윤, 이홍준, 이홍철, 이화수, 이환춘, 이황미, 이효  
 신, 이희숙, 이희숙, 임경란, 임기웅, 임남희, 임덕연, 임동수, 임명진, 임미라, 임미숙, 임민  
 정, 임민정, 임보은, 임상민, 임상호, 임선은, 임성래, 임성섭, 임성종, 임수진, 임수진, 임순  
 광, 임승계, 임승계, 임아연, 임영국, 임영재, 임원택, 임월산, 임은지, 임재성, 임정미, 임정  
 심, 임정택, 임종길, 임종만, 임종한, 임진광, 임진영, 임진우, 임진우, 임채준, 임춘성, 임태  
 순, 임필수, 임현숙, 임현홍, 장 군, 장건, 장경옥, 장경원, 장관호, 장귀선, 장귀영, 장기웅,  
 장대섭, 장동범, 장동엽, 장동진, 장두섭, 장래권, 장명진, 장문경, 장문규, 장민경, 장병기,  
 장병기, 장상욱, 장석재, 장선화, 장선화, 장성두, 장성유, 장세레나, 장세웅, 장세원, 장수  
 일, 장수진, 장순원, 장순향, 장승민, 장안석, 장영심, 장영심, 장영주, 장영진, 장옥기, 장우  
 광, 장원술, 장원호, 장윤영, 장은이, 장을녀, 장재영, 장재완, 장재훈, 장정현, 장종수, 장준  
 하부활시민연대, 장준호, 장지철, 장지혁, 장지화, 장진범, 장진숙, 장진영, 장진영, 장창원,  
 장창원, 장해영, 장현대, 장현수, 전경일, 전경진, 전광열,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강릉  
 대,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기대(수원), 경남대, 경북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경희대  
 (국제),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공주대, 광주대, 국민대, 단국대, 단국대(천안), 대구  
 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명지대  
 (용인), 목원대(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상  
 지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부산지역  
 전문대민주동문협의체),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재경대경민동, 재경원광민동, 재경충북민  
 주향우회,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남  
 대, 한림대, 한성대, 한신대,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흥익대민동 등 총 68개 민동)", 전국철  
 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전기호, 전기호, 전기훈, 전나미, 전명선, 전미예, 전미옥, 전민재,  
 전병선, 전보라, 전봉호, 전비담, 전상보, 전상수, 전선진, 전성도, 전송철, 전순구, 전승진,  
 전연옥, 전연옥, 전영문, 전옥희, 전용규, 전용중, 전월일, 전위봉, 전윤경, 전은미, 전이전,  
 전장곤, 전재민, 전재희, 전종덕, 전종훈, 전주형, 전창배, 전태삼, 전호일, 전홍표, 전홍준,  
 전희영, 정경애, 정경연, 정경우, 정권남, 정귀자, 정규영, 정기식, 정기일, 정기진, 정나위,  
 정남균, 정남기, 정대상, 정대원, 정덕수, 정덕순, 정덕인, 정동석, 정동현, 정록, 정만조, 정  
 명희, 정문진, 정문희, 정미, 정미근, 정미라, 정미령, 정미영, 정미영, 정민규, 정민주, 정민  
 호, 정병호, 정복용, 정부중, 정상철, 정석규, 정선래, 정선희, 정성용, 정성태, 정성홍, 정성  
 희, 정성희, 정세경, 정세영, 정소영, 정송호, 정수경, 정수태, 정수현, 정순녀, 정승희, 정시  
 영, 정애경, 정연덕, 정연은, 정영근, 정영미, 정영미, 정영섭, 정영원, 정영이, 정영일, 정영  
 조, 정영주, 정영채, 정영훈, 정영훈, 정영희, 정옥련, 정용민, 정용재, 정용진, 정우길, 정우  
 진, 정우철, 정운갑, 정운영, 정원석, 정유진, 정윤경, 정윤자, 정윤조, 정운호, 정은경, 정은  
 실, 정은정, 정은정, 정은희, 정의현, 정의화, 정인성, 정인숙, 정인학, 정인학, 정일태, 정재  
 수, 정재은, 정정미, 정정섭, 정정원, 정종미, 정종열, 정종완, 정종호, 정주진, 정준호, 정중

서, 정지성, 정지영, 정지은, 정지현, 정진구, 정진봉, 정진석, 정진우, 정진우, 정진이, 정진화, 정찬길, 정찬무, 정찬용, 정철호, 정춘권, 정춘호, 정태인, 정태준, 정태홍, 정통일, 정한구, 정한철, 정해곤, 정해량, 정해민, 정해신, 정헌민, 정현숙, 정현찬, 정현찬, 정현화, 정형택, 정혜경, 정혜선, 정혜순, 정혜열, 정혜원, 정혜진, 정혜진, 정호, 정호중, 정후택, 정희경, 정희선, 제갈현숙, 제해식, 조건수, 조경래, 조경석, 조광철, 조광호, 조광희, 조권준, 조기태, 조기형, 조기형, 조남경, 조남애, 조대형, 조대회, 조덕휘, 조미애, 조민경, 조민호, 조병욱, 조상규, 조상수, 조상연, 조석현, 조선동, 조성덕, 조성식, 조성식, 조성에, 조성일, 조성훈, 조성희, 조세열, 조승현, 조양진성, 조영건, 조영수, 조영욱, 조영재, 조영희, 조원천, 조원호, 조원호, 조원희, 조은빛, 조은정, 조일권, 조점동, 조정희, 조종현, 조지영, 조창익, 조창익, 조창종, 조창현, 조창형, 조한웅, 조헌정, 조현갑, 조현수, 조현정, 조현철, 조형래, 조형일, 조혜연, 조화명, 조회환, 조희주, 조희주, 좌철석, 주경숙, 주미순, 주선국, 주세훈, 주수경, 주수경, 주재한, 주정숙, 주제준, 줌마리봉스, 지경필, 지몽, 지수인, 지영철, 지은경, 지은주, 지철, 지희준, 진금숙, 진기영, 진수영, 진원숙, 진윤경, 진일우, 진재환, 진태영, 진현배, 진형완, 진효, 차상훈, 차성환, 차영민, 차용만, 차용택, 차우차우, 차은정, 차재우, 차재원, 차진각, 차형근, 참여연대, 채관숙, 채민, 채봉석, 채수용, 채승필, 채시병, 채희선, 천기창, 천문수, 천병태, 천유석, 천재곤,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창영, 천호준, 최갑성, 최경미, 최경진, 최관식, 최국진, 최권중, 최규필, 최근식, 최기중, 최기호, 최나영, 최나영, 최낙선, 최덕현, 최덕현, 최동열, 최동오, 최동진, 최락윤, 최리주, 최만식, 최만익, 최명선, 최명진, 최무영, 최미니, 최미란, 최민, 최민정, 최민환, 최병대, 최병래, 최병상, 최병선, 최병중, 최보경, 최보람, 최보희, 최봉희, 최사묵, 최삼규, 최상은, 최상헌, 최상희, 최석주, 최석중, 최석중, 최선정, 최성연, 최수경, 최수영, 최숙현, 최슬기, 최승원, 최승환, 최신현, 최열, 최연, 최영봉, 최영석, 최영수, 최영수, 최영오, 최영욱, 최영자, 최용규, 최용창, 최원식, 최원영, 최원우, 최원자, 최은계, 최은서, 최은순, 최은아, 최은영, 최은영, 최은주, 최이삭, 최이화, 최인경, 최인진, 최일영, 최일지, 최장윤, 최재선, 최재숙, 최재한, 최정민, 최정순, 최정아, 최정우, 최종업, 최종재, 최종진, 최종태, 최준식, 최지용, 최진, 최진연, 최진영, 최진희, 최창식, 최창준, 최창훈, 최태규, 최필숙, 최한섭, 최한열, 최현미, 최현숙, 최현욱, 최현정, 최현준, 최현진, 최형권, 최형숙, 최혜영, 최혜진, 최홍석, 최희정, 켈리 리, 탁무건, 탁무권, 탁무권, 태준식, 택시 신문고,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연구소, 표명순, 플랜트노동자들, 하강돈, 하경숙, 하계진, 하병수, 하병수, 하상윤, 하상윤, 하선용, 하성원, 하연호, 하용준, 하원오, 하재호, 하정재, 하주호, 하주희, 하준태, 하태훈, 한건희, 한경숙, 한계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기명, 한남수, 한대수, 한대식, 한도숙, 한명자, 한미경, 한미선, 한미정, 한병길, 한봉호, 한상귀, 한상균, 한상덕, 한상진, 한상훈, 한석호, 한선범, 한성찬, 한수, 한순희, 한승아, 한승진, 한승철, 한양환, 한영선, 한용문, 한은영, 한은주, 한재홍, 한정선, 한제희, 한주연, 한준혜, 한찬욱, 한태규, 한현근, 한현기, 한현실, 함경숙, 함수연, 함영기, 함형재, 허

건행, 허광훈, 허남해, 허남호, 허문화, 허미리내, 허보은, 허상수, 허성실, 허승규, 허승두, 허영태, 허은숙, 허장현예, 허정화, 허철, 허태유, 허필자, 현광훈, 현무환, 현석호, 현애자, 현웅섭, 현이석, 현혜숙, 현호성, 혜문, 혜찬, 홍가혜, 홍갑표, 홍경미, 홍관희, 홍근진, 홍기호, 홍길표, 홍동희, 홍명교, 홍미리, 홍성규, 홍성우, 홍성칠, 홍성학, 홍성현, 홍수표, 홍순관, 홍순광, 홍순창, 홍승용, 홍영준, 홍영진, 홍원국, 홍원표, 홍제남, 홍지은, 홍철호, 홍학기, 홍현진, 홍휘은, 황건, 황경순, 황경훈, 황광민, 황교육, 황동환, 황민주, 황민주, 황병창, 황선, 황선배, 황선숙, 황선영, 황선진, 황선희, 황성효, 황수진, 황순규, 황승연, 황애정, 황양택, 황영식, 황원일, 황유리, 황윤미, 황은희, 황은희, 황의대, 황인덕, 황인영, 황재인, 황정란, 황정란, 황정민, 황정원, 황지영, 황진, 황필규, 황해문, 황혁, 황혁, 황현수, 황희두, 황희준, 회일, 회일, 황영애, 안현주, 권혁진, 홍세미, 이종욱, 박영미, 강정숙, 정미경, 조현희, 김혜영, 이민지, 김중태, 박종근, 김덕윤, 송치수

 **맛지않겠습니다** 